

“동행세일이 뭐죠?”... ‘내수진작’ 초대받지 못한 전통시장

Q 르포 | 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 가보니

상인 대부분 모르고 기대감 낮아 행사 매출신장 효과 미미할 것
경품 외 자체마련 혜택 어려워 정부 지원·행사 등 늘어났으면 준비할 시간 부족해 아쉽지만 소비진작 위한 사업, 반길만 해

있지만, 그 활기가 전통시장까지 미치지 못했다.

둔촌역전통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고 있는 김 모씨도 동행세일 관련 정부의 혜택을 알지 못했다. 이들은 동행세일이 가져올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낮았다. 김씨는 “차라리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사용이 좋았겠다”면서 “재난 지원금이 소진되고 있는 마당에 이익이 나올 구멍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동행세일, 그런 게 있어요? 뭔지 설명 좀 해봐요”

1일 오전 찾은 둔촌역전통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에게 동행세일에 관해 아느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이 시장의 상인들 대부분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대해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매출 상승으로 동행세일 효과를 톡톡히 보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지난 26일부터 시작해 이번 달 12일까지 17일간 이어진다. 동행세일 첫 주말인 27일~28일 국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20%가량 올랐다.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백화점과의 분명한 온도차가 느껴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동행세일 기간 시장의 매출 신장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상인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기대감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혜택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남은 재고를 세일 처리하고, 온라



1일 오전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둔촌역전통시장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현수막이 걸려있다.



1일 서울 암사동 암사종합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놓인 동행세일 이벤트 경품들. /원은미 기자

인쇼핑몰에서는 카드 할인이나 쿠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이 개인 자영업자인 시장에서는 혜택 제공에 제한이 있다.

둔촌시장 측에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 경품 추첨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익명을 요청한 시장 관계자는 “경품 외에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혜택이 적다”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행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황은 서울의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상암동 암사종합시장에서

만난 관계자 역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과 비교하면 시장은 동행세일 덕을 적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암사종합시장시장은 120여 개 점포가 들어서 있고 출입구가 6개나 되는 만큼 비교적 규모가 크고, 가격도 저렴한 곳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이 지역에선 확진자가 두드러지지 않아 시장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엔 무더위에 제로페이 사용 고객이 줄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다.

암사종합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만난 조선희씨는 “현수막 6개를 붙여놨

만 이곳 주민 중 동행세일을 알고 찾는 사람은 적다”며 “경품과 전단 등 행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고령의 상인들이 많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사무실 한 칸에는 밥솥 등 각종 경품과 동행세일 관련 자료들이 즐비했다.

조씨는 “급하게 만들어진 행사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게 아쉽지만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여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삼성전자, 연내 석·박사급 인력 1000명 뽑는다

상반기 반도체 설계, AI 부문 500명
이재용 부회장 ‘인재중시 철학’ 노력

삼성전자가 차세대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대대적으로 채용하며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인재 중시 철학’에 따른 노력이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반도체 설계와 인공지능(AI) 부문 박사급 인력을 500여명 채용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신기술 분야에서 석박사 인력 채용을 지속해, 연간 역대 최대 수준인 총 1000여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DS부문 채용 공고를 통해 ▲차세대 메모리 리더십 강화를 위한 메모리 연구개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 위한 설계 및 공정 분야 ▲반도체 생산라인 스마트공장 구현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는 이재용 부회장(오른쪽). /삼성전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적인 AI 및 소프트웨어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 인재 영입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 ▲IT 산업 경쟁 심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경영철학으로 미래 사업 분야의 우수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삼성전자가 인력 충원에 발벗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인재를 중시해야 한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철학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삼성 앞으로는 성별과 학벌, 나이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 와야 한다”며 “인재들이 주인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해야

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세바스찬 승 사장을 삼성리서치에 소장자로 새로 영입하는 등 글로벌 핵심인재를 직접 발굴하고 요직을 맡기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내왔다.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채용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며 “소중한 아들과 딸들에게 기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8년 18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AI, 5G, 전장용 반도체 등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1만5000명을 채용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공식화하고 반도체 생태계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수출 4개월연속 감소

산업부, 코로나19 사태 영향 감소폭 20%→10%대 둔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4개월 연속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수출감소 폭은 3개월 만에 20%대에서 10%대로 둔화됐다. 수출보다 수입 감소가 많아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392억1300만 달러에 그쳤다. 수입은 11.4% 감소한 355억47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6억6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6월 수출 감소율이 3개월만에 20%대에서 10%대로 축소됐다”며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이 4~5월보다 개선됐고, 수출 물량도 3개월만에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수출액은 4월 16억5000만달러, 5월 16억2000만달러, 6월 16억7000만달러로 유지되고 있고, 수출 물량 증감률은 4월 -11.3%, 5월 -20.6%로 확대됐다

중소철강회사 재도약 위해 5년간 1354억 투입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예타조사

중소 철강회사 미래 기술력 확보와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간 1354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2021~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354억4000만원(국비 923.9억원, 지방비 102.8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대기업 중심 범용 소재 위주의 양적 성장을 도모했던 국내 철강 산업의 한계를 인식, 새로운 성장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기획됐다. 사업에는 중앙부처인 산업부 뿐만 아니라 경북, 전남, 충남 등 철강 산업 주요 거점 지자체와 업계·연구계가 밀접하게 협력해 철강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산업공유자산으로 구성된다. 사업을 통해 기가급 강판 압연용 초내마모계 분말소재 개발 등 중소기업 가공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제강분진이나 슬래그 등 부산물의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 구축과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협의체 운영, 향후 사업을 총괄 운영하게 될 사업운영지원

단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과제별 상세 기획을 마무리하는 한편, 사업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사업운영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2021년부터 차질없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완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은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예타 통과로 중소·중견 철강사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용수 기자 hys@